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 SNS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학생-교수의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

장지연*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iyeun Chang*

Division of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우리의 소통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Social Network Service(SNS)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교수-학생과의 관계형성(교수신뢰, 장기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연구이다. 연구 모형은 커뮤니케이션, SNS, 관계 개발의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를 위해 교수와 SNS를 통해 소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10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유효한 195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martPLS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독립변수인 커뮤니케이션의 질, 커뮤니케이션의 빈도, 상호작용성, 개방성은 교수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질, 커뮤니케이션의 빈도, 개방성이 검증되었으며 상호작용성은 교수신뢰의 매개효과를 통해 장기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SNS, 커뮤니케이션, 교수신뢰, 장기지향성, 관계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eatures of communic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affect building faculty trust and long-term orientation in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s. The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bout communication, SNS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The researcher surveyed 210 students to collect research data, and 19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martPL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y, frequency, interactivity and openness of communication on SNS affect positively on faculty trust. Moreover, the quality, frequency and openness of communication on SNS affect positively on long-term orientation, whereas interactivity does not. This mean that faculty trust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interactivity and long-term orientation

• **Key Words** : SNS, Communication, Faculty Trust, Long-term Orientation, Relationship

*교신저자 : 장지연(joy@bu.ac.kr)

접수일 2015년 10월 9일

수정일 201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20일

1. 서론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회적 보급과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이용의 일상화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부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SNS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매체가 되었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SNS는 PC와 같은 고정형 기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활용 플랫폼이 변화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의 발전과 함께 SNS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SNS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사용자 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웹인덱스(GWI)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월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출시한지 10년째 접어드는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12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페이스북은 32개국 17만 명 이용자의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2013년 4분기 83%의 응답자들이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49%의 응답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NS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5년 보고서[1]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조사인원 중 39.9%가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31.3%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메일은 이용률이 1%, 클라우드서비스는 2.3% 등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볼 때, 이메일, 클라우드서비스 등 여타 다른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 증가추세는 1%~2% 내외로 완만한 반면, SNS 이용률은 연평균 8%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령별 통계에서 20대의 SNS 이용률이 74.4%로 가장 높았으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SNS의 급속한 확산은 현재의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SNS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SNS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증가는 예전과 같은 방식의 사회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NS와 같은 소셜 플랫폼의 확장은 새로운 관계 정립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정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신되는 교수와 학생간의 정서적 연대감과 믿음이 중요하며, 교수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과 교수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의 도구로서 SNS의 활용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SNS를 이용하여 대화하고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도움을 주고,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커뮤니케이션이란 교환 당사자 사이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나타낸다[3]. 이러한 시기적절한 정보의 공유는 신뢰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3]. 따라서 과거의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신뢰수준의 선행요인이 되며 이러한 신뢰는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품질이 높고 커뮤니케이션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4].

SNS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고 면대면 의사소통이 주가 되었다면, 모바일 환경에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더욱 빈번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진(2011)의 연구에서 SNS는 인간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5]. 또한 이미균(2014)은 SNS관련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성을 개인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라 정의하였다[6].

2.2 교수신뢰

교수자의 행동은 이를 지각한 학생들의 기대와 성취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생이 기대하는 교사상을 확립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 활동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7,8]. 따라서 교수자와 학생간의 신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신뢰는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행동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기초하여 관계형성의 유지,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인지적, 정의적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2,9].

학생과 교수자의 신뢰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 약속이행 언행일치와 같은 믿음,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성, 정서적 결속감이나 연대를 갖는 친밀감, 성실성 등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2,9,10,11].

Martin Buber는 교육의 핵심을 관계로 보았다. 나-그것의 관계, 즉 상대를 수단으로 삼아 대상화하는 교실, 학교, 사회 속에서 나-너의 관계, 즉 상대를 목적으로 삼는 관계형성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수자의 역할을 바람직한 관계형성, 즉 나-너의 관계형성으로 보고 신뢰를 교육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12].

교수자와 학생 관계처럼 상호 친밀성이 바탕이 되는 인간관계에서는 정서적인 결속 또는 유대감의 상태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뢰를 통해 나타나는 친밀감의 상태는 교수와 학생간의 정서적 교류와 밀접한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으로 교과 학습행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거리를 의미한다[13].

오늘날 SNS가 가져온 관계 맺음의 방법과 폭의 변화는 정보 자원의 다양화, 정보 전달 속도의 무제한, 사회적 지원의 다양성 등을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SNS는 인맥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화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오은혜(2013)는 SNS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관계 맺기와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담은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하며 신뢰구축에도 용이하다고 하였다[14].

2.3 장기지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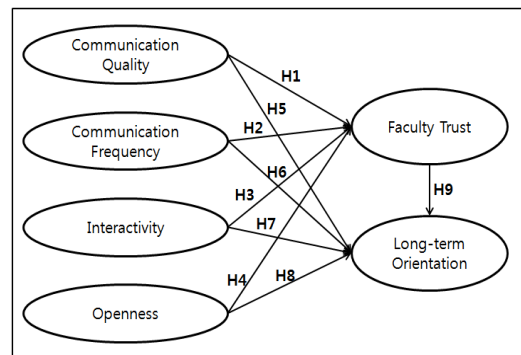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족과 신뢰의 가치를 인식한

관계파트너는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15].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기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뢰이다[16]. 장기지향성은 단순한 관계지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친밀도를 의미한다[17].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SNS를 활용하여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간의 SNS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교수 신뢰와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관계유지를 위한 변수는 다수의 연구자들이[4,9,15,16,17] 제시한 교수신뢰와 장기지향성을 선택하였다. 또한 관계유지의 영향 요인으로 과거의 커뮤니케이션이 현재 신뢰수준의 선행요인이 된다는 연구[4],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시기적절한 정보의 공유는 신뢰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3] 등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질,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SNS는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5] 일방적 소통이 아닌 관계 맺기와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담은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하며 신뢰구축에도 용이하고 정보나 콘텐츠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SNS를 수용한다[14]는 연구 등을 토대로 상호작용성과 개방성을 선정하여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Internal Consistency and Discriminant Validity

Variables	Items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AVE Analysis(compare with the Square Root of the AVE)					
				Communication Quality	Communication Frequency	Interactivity	Openness	Faculty Trust	Long-term Orientation
Communication Quality	6	0.940	0.923	0.851					
Communication Frequency	2	0.926	0.839	0.354	0.928				
Interactivity	3	0.959	0.936	0.174	0.274	0.942			
Openness	3	0.878	0.793	0.008	0.355	0.277	0.841		
Faculty Trust	5	0.942	0.922	0.412	0.505	0.350	0.352	0.874	
Long-term Orientation	2	0.909	0.801	0.262	0.463	0.246	0.492	0.485	0.913

4. 실증분석

본 연구는 연구 가설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중의 하나인 PLS(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경로모형을 사용하였다.

PLS 분석에서 신뢰성은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로 판단한다. 합성신뢰도는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측정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합성신뢰도는 신뢰성 분석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martPLS를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합성 신뢰도가 0.7 이상으로 각 측정항목은 신뢰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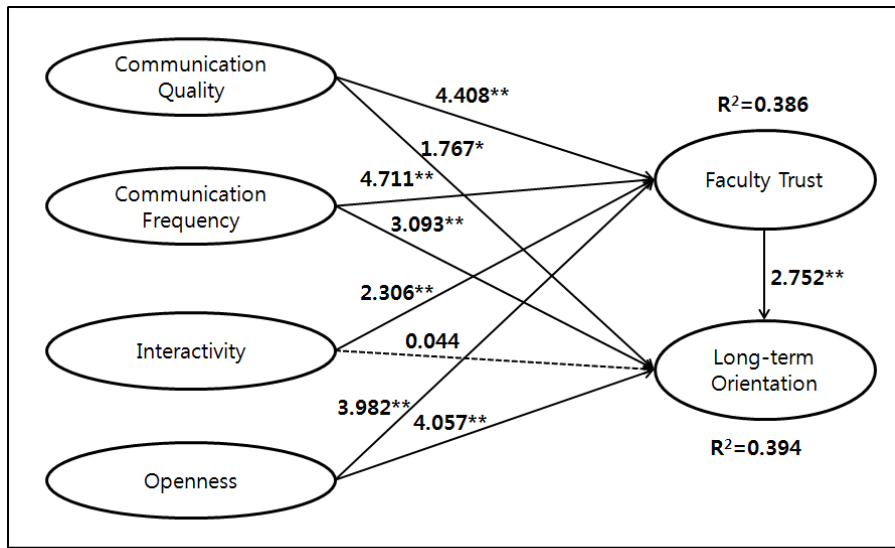
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검토 되어져야 한다 [18].

집중타당성은 각각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 아이템이 유의한 t값을 가질 때 타당성이 존재한다. 분석결과 모든 t값이 1.96이상이므로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판별타당성은 2가지 방법에 의해 확보 될 수 있는데 첫째, 추출된 평균분산의 제곱근 값이 다른 측정 변수와의 상관(Correlation) 보다 크고 0.7 이상이어야 한다[18]. <Table 1>은 내적일관성 및 판별타당성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에서 대각선 행렬은 각 개념의 상관 계수행렬(Correlation Matrix)에서 추출된 평균분산의 제곱근 값을 동일 변수의 상관계수의 자리에 입력하여 분

<Table 2> Factor Loading and Cross Factor Loadings

	Communication Quality	Communication Frequency	Interactivity	Openness	Faculty Trust	Long-term Orientation
CQ1	0.842	0.304	0.121	0.011	0.354	0.224
CQ2	0.770	0.280	0.107	0.001	0.326	0.154
CQ3	0.880	0.268	0.169	0.039	0.395	0.247
CQ4	0.761	0.266	0.047	-0.047	0.245	0.187
CQ5	0.919	0.334	0.203	0.009	0.378	0.253
CQ6	0.920	0.351	0.203	0.009	0.378	0.253
CF1	0.372	0.929	0.243	0.302	0.477	0.429
CF2	0.285	0.927	0.266	0.357	0.462	0.430
INT1	0.131	0.255	0.916	0.259	0.271	0.223
INT2	0.180	0.234	0.958	0.253	0.384	0.232
INT3	0.176	0.290	0.951	0.273	0.321	0.240
OPE1	0.054	0.205	0.272	0.840	0.287	0.469
OPE2	0.006	0.358	0.214	0.860	0.301	0.422
OPE3	-0.049	0.343	0.208	0.821	0.302	0.336
LTO1	0.257	0.450	0.212	0.451	0.491	0.923
LTO2	0.219	0.392	0.239	0.447	0.388	0.903
FT1	0.335	0.434	0.334	0.298	0.841	0.323
FT2	0.395	0.490	0.279	0.355	0.866	0.448
FT3	0.346	0.430	0.391	0.328	0.903	0.417
FT4	0.366	0.428	0.269	0.292	0.892	0.467
FT5	0.354	0.422	0.259	0.260	0.866	0.451



* $p < 0.10$; ** $p < 0.05$

[Fig. 2] Results of Proposed Model

석한 것으로 추출된 평균분산의 제곱근 값이 모두 0.7 이상이며 다른 상관계수 값 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므로 첫 번째 판별타당성 조건을 만족한다.

둘째, 요인 적재 값과 교차요인 적재 값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즉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 값은 동일항목의 교차요인 적재 값 보다 크고 그 크기도 모두 0.5 이상이어야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18].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 값이 동일항목의 교차요인 적재 값 보다 크고 그 값이 모두 0.5 이상이므로 측정항목의 판별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210부중 결측치를 포함하여 통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15부를 제외한 19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척도는 선행연구를 본 연구 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SmartPLS의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는데 검증 결과는 [Fig. 2]와 같다. 분석 결과 교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질, 커뮤니케이션의 빈도, 상호작용성, 개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교수와의 장기적인 관계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질, 커뮤니케이션 빈도, 개방성이 검증되었다.

상호작용성의 경우 장기 지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아닌 교수 신뢰의 매개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수신뢰는 장기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소통의 매체로 대두된 SNS 환경 하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SNS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검증되었다. 이는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실이나 학교에서 만나 상담하는 전통적인 교수와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 까지 SNS를 통해 교수와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수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교수신뢰의 매개효과를 통해 장기지향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직접효과 $t = 1.767$, 간접효과 $t = 2.405$).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정보의 획득이 쉬워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하는 정보가 적시에 정확

하게 전달된다는 교수 신뢰가 형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교수와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방성은 교수 신뢰와 장기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8년생부터 시작되는 G 세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G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급기가 없이 솔직한 게 미덕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G세대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관계형성을 위한 매체 선택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상호작용성은 장기지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학생 간에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에서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설문 참가자의 대표성의 문제로 표본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SNS 사용자와 미 사용자 차이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차후의 연구에서 비교 분석을 한다면 현재 연구보다 더욱 진보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향후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교수와 학생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요인의 발굴을 통해 좀 더 포괄적인 연구모델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2&controlNoSer=43&controlNo=13605&langdiv=1>
- [2] E. L. Jeong. and Y. H. Park. "Relation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9, No. 1, pp. 73-93, 2008.
- [3] Anderson, J. C., and J.A. Narus, "A Model of Distributor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Journal of Marketing*, Vol. 54, pp. 42-58. 1990.
- [4] Morgan, R. M. and Hunt, S. D.,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Vol. 58, pp. 81-101. 1994.
- [5] D. J. Kim, "An Empirical Study on User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for Continuous usage of Social Network Service",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6] M. K.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Characteristics, Reliability, Commitment, Purchase Intention. -Focusing on K Airline",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8, No. 4, pp. 57-71. 2014.
- [7] Weinstein, R. S., Children's knowledge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school: Implications for motivation. In T. M. Tomlinson (Ed.),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Overcoming barriers to high achievement*, Berkeley, CA:McCutchan, pp. 197-224, 1993.
- [8] Furrer, C., and Skinner, E.,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5, No. 1, pp. 148-162, 2003.
- [9] S. J. Lee. and J. S. Han,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cher-trust scale for adolescenc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8, No. 3, pp. 23-39, 2004.
- [10] Bryk, A. and Schneider, B., *Trust in schools*. Russell Sage Foundation. 2002.
- [11] Hoy, Wayne K. Tschannen-Moran, Megan, "Five Faces of Trust: An Empirical Confirmation in Urba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School Leadership*, Vol. 9, No 3. pp 184-208, 1999.
- [12] J. Y. Chang, "A Study on "Education in Dialogue Relationship" Proposed by Martin Buber", Ph.D.

-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2.
- [13] D. W. Han. and M. C. Kang., "An Empirical Study of applying SNS to lecture and professor trus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Issue 10, pp. 531-539. 2014.
- [14] E. H. Oh, "A Study on Main Features of SNS User Acceptance Decision",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31, No. 3, pp. 47-73, 2012.
- [15] Sharma, N. and Patterson, P. G., "The Impact of Communication Effectiveness and Service Quality on Relationship Commitment in Consumer, Professional Service",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Vol. 13, pp. 151-170. 1999.
- [16] Ganesan, S., "Determinants of Long-term Orientation in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Vol. 8, pp. 1-19, 1994
- [17] Thomas G. Noordewier, George John and John R. Nevin, "Performance Outcomes of Purchasing Arrangements in Industrial Buyer-Vendo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Vol. 54, No. 4, pp. 80-93, 1990.
- [18] Gefen, D. and Straub, D., "A Practical Guide To Factorial Validity Using PLS-Graph: Tutorial And Annotated Exampl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16, 2005.

저자소개

장 지 연(Jiyeun Chang)

[중신회원]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교수

<관심분야> : 교육심리, 교육상담, 교육철학, ICT 교육,
Relationship Development